



Newsletter

2015년 8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 왕기석 이사 공연 안내

- 시간 : 2015년 8월 14일(금) 오후 6시
- 장소 :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 내용 :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광복 7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추진단이 주관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공연 -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가 청년 김구로 열연할 예정입니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포스터 참조

白凡金九
일시 | 2015년 8월 14일(금) 오후 6시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아리랑연장)
전석 무료 공연

공연순서

- 오후 6시~ 1부 **빼앗긴 나라 - 청년역정**
명창 왕기석, 고수 김학용
1장 : 황해도 아가집주
2장 : 나라의 자유를 썰어보리라
3장 : 새로운 독립정부를 세우리라
- 오후 7시~ 2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창 왕기석, 고수 김학용
1장 : 한인애국단 특무공작
2장 : 조국 광복은 우리 힘으로
- 7시 50분~ **중간 휴식**
간단한 광복 진야 음식 나누기
- 8시 15분~ 3부 **갈라진 나라 - 해방시대**
명대 임진택, 고수 이규호
1장 :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국가다
2장 : 심팔선을 배고 쓰러질지언정
3장 :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4장 :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오시는길

버스 : 간선버스(은평구청) 702, 752
지선버스(은평구내) 7019, 7711, 7719, 7722
지선버스(수원) 7022
마을버스(은평문화예술회관) 안원
광역버스(은평구영) 9701

지하철 : 3호선 불광역 3번 출구 (북면동, 현제하도 광면 800m)
3호선 독립역 4번 출구(은평구청 앞)
6호선 하문역 3번 출구(아리랑연장)

주최: 서울시 후원: 광복 7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추진단 후원: 은평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연구원 회지 제호 선정 안내 - 회원의 날 투표로 결정

- 내용 : 연구원에서 발간 예정인 회지의 제호 응모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응모에 참여해주신 열기만큼 특정 제호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바, 제호 선정을 다가오는 8월 회원의 날에 참가하신 분들의 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해방 70주년, 한일회담 50주년 맞이
글로벌 휴머니티 소사이어티 기념행사**

◆ **미래를 향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 강사 : 이규수(고려대)
- 일시 : 2015년 8월 14일(금) 15:30~17:30
- 장소 :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벌 아카데미(2층)

◆ **일본군 '위안부' - 망각에 대한 저항, 미래의 책임**

- 강사 : 한혜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10:00~12:00
- 장소 :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벌 아카데미(2층)

<기념공연 및 낭독회>

- 배우 : 아리마 리에(有馬理恵)
-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14:00~16:00
- 장소 :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설 보라매
글로벌 아카데미(5층)
- 주제 : 나의 평화를 향한 몸부림



* **아리마 리에(有馬理恵) :**

: 배우. 일본 하이유자(俳優座) 소속. 일본 평화위원회 대표이사. 2013년도 일본신극배우협회 「시와낭독(詩と朗読) Mini Festival」 관객상 수상. 2012년 미국 루이비르 국제영화제 최우수 도큐멘타리상 수상작품 『円空 - 今を生きる -』에서는 円空의 어머니역으로 출연. 동아시아의 평화와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 **2015년 회원의 날 안내**

: 연구원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 전주대학교에 새 등지를 튼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리가 미진하여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만, 새로이 옮긴 연구원에서 강연과 체험행사 등을 중심으로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리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음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날짜 : 2015년 08월 22일(토) ~ 23일(일)
- 장소 : 행사(전주대학교 일원), 숙박(초남이 성지)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8월 03일(월) : 주간회의
- 08월 07일(금) :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 역사속의 오늘

○ 내 귀에 도청장치 - 1988. 8. 4

: 한국의 방송 사고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장면.

올림픽을 앞둔 8월, 염천에도 당일 MBC 뉴스데스크는 매우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앵커는 서울시 지하철 증설과 요금 인상 관련 뉴스를 침착하게 전하고 있었다. 그 순간 옆으로 웬 사복의 남자가 다가서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이 남자는 앵커를 밀치고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내 귀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는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기를 썼고 이내 이 불청객은 쫓겨났다. 그는 끌려가면서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외쳤다. 성은 소씨 주소는 서울시 가리봉동.

경찰은 그가 1년 전 축구를 하다가 공에 얼굴을 맞은 뒤 귀에 이상이 생겼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계속 고통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씨 청년이 일으킨 방송 사고는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났다. 뉴스를 진행하던 사람이나 보던 사람이나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20여초 뒤에 태연하게 뉴스는 이어졌고, 그 청년이 일으킨 방송 사고는 잊혀졌다.

그 후 이 청년은 1989년 9월 26일에 서울대생들이 교문 밖 투석시위가 벌이던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중간지점에 갑자기 뛰어들어 양말과 구두를 남기고 옷을 전부 벗은 채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는데 경찰이 이 사실을 차단, 은폐하고 있다”며 1분간 알몸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된(1989년 9월 27일 경향신문) 후 소식이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도·감청 의혹” 사태는 청년 소씨가 일으킨 방송 사고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파괴력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절대 ‘내국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일은 없다고 국민들은 믿고 싶다. 사명감과 헌신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정보기관 관련자들의 노고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강요에 의한 표면적 신뢰가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실체적 신뢰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피어 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이 개인이 일으킨 방송사고 따위가 아니라 국가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길 빌고 또 빌어본다.

○ 용금호의 갈림길 - 1973. 8. 8

: 유신헌법 공포 뒤 귀국하지 않고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은 1973년 8월 도쿄에서 반 유신 집회를 앞두고 있던 중, 중앙정보부 요원을 필두로 한 일단의 괴한들에게 납치당한다.

마취약을 맞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사카로 옮겨진 뒤,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던 공작선 '용금호'에 실려 수장당하기 직전, 일본해상자위대 함정이 추격하자 납치·살인 계획을 포기하였다. 닷새 뒤 김대중은 동교동 자택 앞에서 발견된다.

사건을 조사한 일본 경찰은 주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납치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주일 한국대사관 김동운 일등서기관으로 밝혀지자, 출두를 요구했으나 한국정부는 거부했다. 이후 사건은 한국 공권력에 의한 일본 주권침해라는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조정 및 한·일 간의 막후 절충으로 김동운 해임, 김대중의 해외체류 중 활동에 대한 면책,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의 진사방일(陳謝訪日) 등이 합의됨으로써 일 단락되었다.

이후 김대중은 가택연금과 동시에 유신헌법 내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다.

유신체제 10개월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자신의 정적을 암살하려는 음모로 드러나 국내·외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우리 현대사에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해방 직후 뿐 아니라 한국전쟁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장면은 1956년 암살 위기에서 가벼운 총상으로 살아났고,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195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유신체제 이후 벌어진 대표적 의문사 가운데 하나인 장준하 선생 피살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김대중이 1973년 용금호에서 바다에 던져져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면 유신체제가 어디까지 이어졌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유신체제에서 김대중이 살해당했다면 1980년 '광주항쟁'도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모를 일이고, 1980년 '광주항쟁'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1973년 8월 용금호에서 벌어진 생사의 갈림길은 20세기와 21세기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늠할 수 없는 길이었다.